

# 하나은행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

# 사유가 충돌하는 이우환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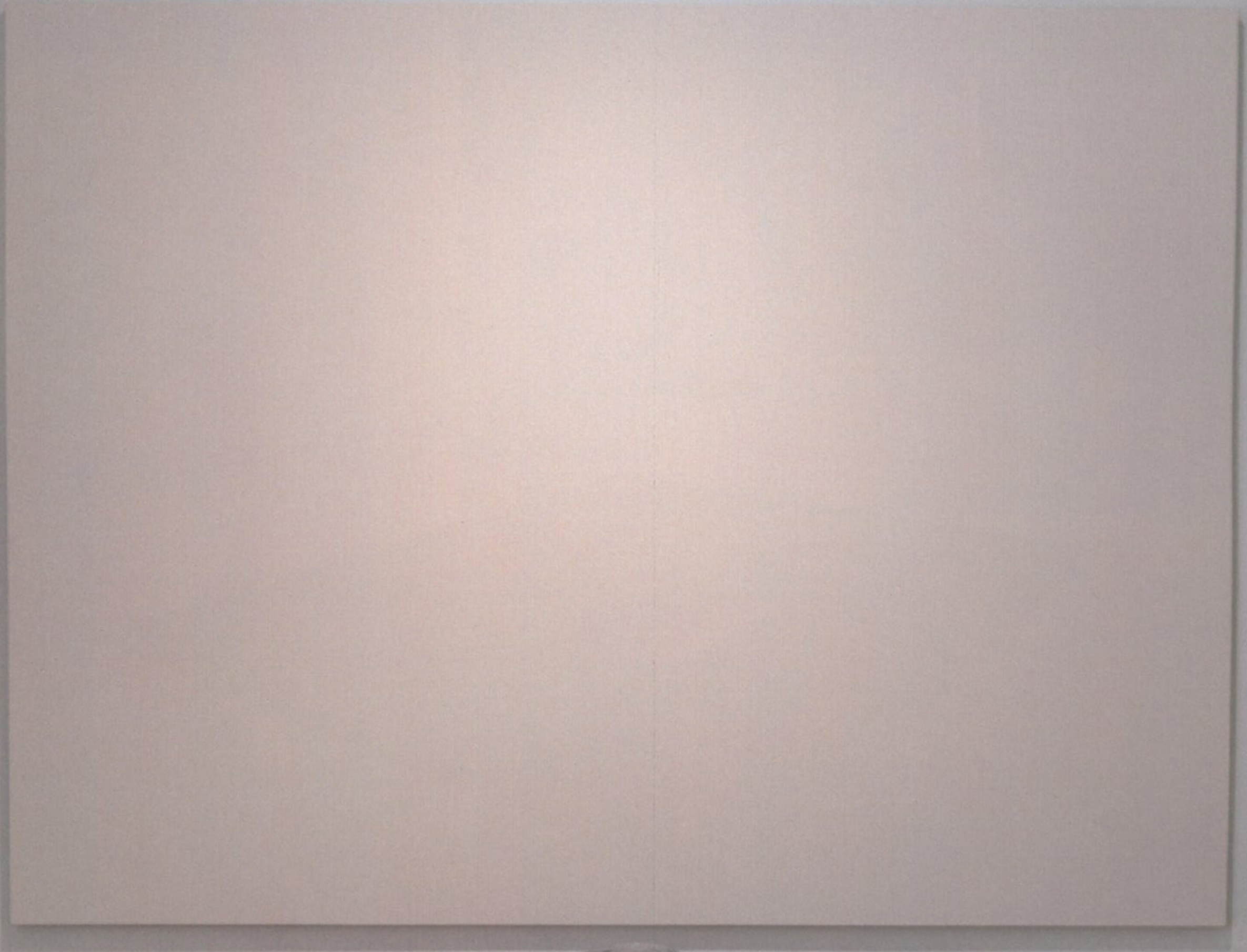
이우환 작가의 국내 첫 미술관인 '이우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의 전시품보다 작품이 더 많고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가깝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벌써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공간에 놓여 있는 큰 돌맹이와 철판은 고유의 물성에서 벗어나 생각의 등을 켤 때 비로소 돌과 철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이 되어 공간을 뛰어다닙니다. 작가의 심오한 철학이나 작품 의도는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지요. 알쏭달쏭한 느낌 혹은 각자의 해석에 폭 빠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우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두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요만큼의 사유입니다.

## 이우환이 그리고 만든 첫 공간

50년 가까이 돌과 철판을 이용해 사유를 건네는 이우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롯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침내 국내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4월 부산시립미술관 부지 내에 '이우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 거장 안도 타다오, 로만 오팔가, 아니시 카푸어, 주세페 페노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이제 집 앞마당에서 보는 마음으로 언제나 둘러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물에 존재감을 부여하고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일본의 미술 운동인 모노하를 주도하며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우환 작가의 부산 상륙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길 만큼 반가운 소식이지요. 사실 몇 해 전부터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구 지역에서 이우환 작가에게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지만 개인 미술관을 내키지 않아 했던 그는 여러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진정성과 부산에서 성장기를 보낸 유년 시절의 향수 덕분에 마침내 부산시립미술관 부지에 그의 공간을 짓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면적 1,400m<sup>2</sup> 규모의 '이우환 공간'은 설계와 전시 콘셉트 일체를 작가가 직접 도맡았고 건축 형태를 그가 추구해온 점, 선의 미학적 개념을 반영했습니다.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그의 미술관은 일본 건축의 거장 안도 타다오가 설계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이우환 공간'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그의 유일한 개인 미술관이었지요. 나오시마의 미술관이 안도 타다오의 특징을 담아 자연 속에 지은 건축 중심의 미술관이라면 부산의 '이우환 공간'은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작가가 의도한 작품 중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작품과 공간이 하나 되어 만드는 또 하나의 작품

'이우환 공간'에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뜰에는 철판을 둘러싼 네 개의 돌이 회의를 하는 모습인 <회의, 2013>이 설치되어 있어 작품 가까이 가서는 목소리를 낮추게 되지요. 대답을 나누는 듯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조잘조잘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시 장소마다 그 느낌을 달리하는 것은 이우환 작가 작품의 특징입니다. 좁은 통로를 몇 번이나 꺾으며 걸어가다 보면 비로소 전시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작품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전시장의 웅덩이그런 느낌에 적잖이 당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우환 작가가 주도하는 모노하 작품을 대면할 때 대부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캔버스와 붓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나무, 돌, 철판, 종이 등의 오브제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동양 최초의 현대 미술 운동인 모노하는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에 이우환 작가가 있습니다. 고 백남준 작가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면 이우환 작가는 모노하의 창시자인 셈입니다. 깨진 커다란 유리 위에 놓인 돌과 아무런 터치 없이 벽에 걸린 큰 캔버스 <관계항-지각과 현상, 1969>는 저항 정신이 강했던 일본의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폭력을 의미하는 깨진 유리판과 그림을 거부하는 빈 캔버스가 상징적으로 대조하는 것이지요. 간단명료하지만 사유하게 하는 힘은 묵직합니다. 이쯤 되면 돌이 더 이상 돌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순식간에 변해버린 시선은 어마어마한 상상력도 함께 데려옵니다. 반대편 전시실의 <관계항, 2015>도 흥미롭습니다. 바닥 위에 다섯 개의 돌이 둘러 놓여 있고 철봉이 돌 사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돌과 철봉은 그 안의 규칙을 벗어나 있고요. 이우환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참가한 자와 참가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했



빈 캔버스, 그리고 커다란 돌 하나. 2015년 작품인 〈대화〉, 캔버스와 돌 사이,  
그 둘의 조용으로 채워진 공간은 지금 나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1

1. 점과 선으로 설명하던 이우환작가의 회화가 3차원의 공간을 가득 메운다. '대화', 아크릴 채색 벽화, 벽면 657×415cm, 2015 / '대화-발굴' 바닥면에 아크릴 채색, 모래, 모래 바닥면 265×265cm
2. '뜨오기', 나무에 조각, 102×84cm, 1973
3. 1층의 길고 아름다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서면 이우환의 1970~80년대 대표작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4. 이우환 작가가 기획과 설계에 참여한 이우환 공간의 외관. 마당에 놓인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2



3

#### 관람시간

화·수·목·일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8시

금요일,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의날) : 오전 10시~오후 9시

매주 월요일 휴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부산시립미술관 별관

전화 051-744-2602



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그러한데 보는 이에 따라서는 공깃돌이 될 수도 옷 놀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잘 알 수 없고 낯설어도 보는 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울림을 느낀다면 작가는 그 이상 무엇도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우환 공간'에서 기대하는 전부입니다. 그의 작품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고향과 같은 부산에서 시민들 앞에 첫선을 보이는 마음은 조금 남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공간을 열면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의아하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 없는 캔버스가 무슨 작품이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작품을 통해 미술에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는 돌과 철판으로 이뤄진 조형미술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단색의 회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람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전시 공간을 이어주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작품과 공간이 어울려 나오는 울림을 발견하고 공간을 걸어 다닐 때 이 좁은 통로는 사유를 극대화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를 오가면서 그 흐름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집중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집중하면서 둘러볼 수 있도록 관람 동선까지 신경 쓴 작가의 배려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미술관이라는 이름 대신 공간이라는 이름을 애써 붙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이우환 작가는 전시장은 작품의 개체를 보이는 곳이 아니고 공간의 울림과 느낌을 우선적으로 체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관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고 있는 <대화, 2015>를 마주하자마자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에서 본 모네의 <수련>이 떠올랐습니다. 대작이기도 했지만 공간과 잘 어우러진 작품에 단번에 압도된 기억이 강렬했던 작품이었지요. 전시장 가운데에 놓인 큰 돌과 벽에 걸린 흰 캔버스, 그리고 나. 잠시 멍하게 두 오브제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가 이내 백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유는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우환 작가는 그의 예술 철학으로 모든 예술의 역할이 예

술 자체보다 그 너머의 어떤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술가는 결과적으로 외톨이고 오로지 홀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가 가져다놓은 돌멩이 하나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상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울림은 인간을 넘어 시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국 이 공간의 완성은 관람객과 그들의 사유가 만들어내는 것이겠지요.

### 세계인이 주목하는 소통 공간 되길

이우환 작가는 앞서 말했듯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입니다. 국내 호암상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미술상, 일본 도쿄 세계문화상 등 굵직한 미술계의 상을 받았고 파리 주드폼 미술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등 가장 뜨거운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초대를 받아 <이우환 베르사유> 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르사유 전은 총 10점의 작품을 전시 준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우환 작가는 처음부터 베르사유 정원과 대화할 수 있는 작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모티프로 한 거대한 작품이 이미 완벽한 건축물인 베르사유 궁전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조화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든의 백발이 성성한 노장이지만 그는 여전히 현대미술의 흐름에 가장 가깝게 탐지되는 작가입니다. 2010년 개장한 나오시마의 이우환 미술관에는 한 해 평균 40만 명의 관람객이 드나들고 그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국적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예술 하나로 만드는 문화란 이런 것이겠지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이우환 작가의 국내 첫 공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대화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이 국내에서만 머무르는 고여 있는 공간이 아닌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점이 되어 세계 예술인에게 한국 예술의 사유를 신명 나게 건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ㅎ

글·최수정 | 진행·장선애 | 디자인·김진영 | 사진·한상무